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6 주일]

2009년 9월 26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강태중 바르티메오, 정원심 크리스티나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다음주 미사 해설: 김리미 멜라니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31.50

교무금: \$ 120

매일미사: \$ 5

합계: \$356.5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격주 목요일(10월 15일) 저녁 8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나

† <오늘의 묵상>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조금도 타협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천을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손발처럼 중요해도 ‘죄가 된다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눈처럼 요긴해도 ‘죄의 원인’이라면 단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취미일 수 있습니다. 평생 추구하던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과 위배된다면 ‘끊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깨달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 근본’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행위입니다. 실천하면 쉽게 깨달아집니다.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금방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직설적이고 타협이 없는 단호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삭막해집니다. 지식과 재물이 넘치더라도 삭막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담아야 인생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제 1 독서> 민수기 11,25-29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제 2 독서> 야고보서 5,1-6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9,38-43.45.47-48

그때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64 봉헌: 511 성체: 504 파견: 6

† <생명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교회사목부

바늘과 실이 사이좋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콧노래도 흘러나옵니다. 가다 쉬다 하면서 바늘과 실은 하나의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냅니다. 서로가 힘을 모아 만든 작품이기에 더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가위가 바늘과 실의 우애가 샘이 났는지 한마디 합니다. “저 옷에 남아 있는 흔적을 찾아봐. 그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 보면 누가 저 옷의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될 거야!”

이 말에 바늘은 옷의 구석구석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흔적이라고 실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바늘은 실을 떠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공로는 언제나 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바늘은 혼자서 일을 합니다. 실을 위해 언제나 비워 두었던 바늘귀도 막아버렸고 저번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옷을 감격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이 불었고 완성된 줄 알았던 옷은 천 조각들이 되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늘은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이 든 바늘은 실과 함께 했던 때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위의 한마디 말에 실을 떠났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실을 찾아가했습니다. 실은 반갑게 바늘을 맞아 주었고 다시는 우열을 따지는 어리석은 일로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하며 새로운 옷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막아 놓았던 바늘귀를 다시 뚫고 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바늘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은총이며 섭리입니다. 바늘귀는 하느님을 위해 비워 놓은 우리 마음의 공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내어 드릴 때 하느님은 기꺼이 그 공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거둔 열매인 아름다운 옷을 끝까지 지켜 주는 것은 바늘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실인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다가 보면 자신의 딸과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간절한 호소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보게 됩니다.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지옥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절규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 제발 육신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 죄를 선택하기보다 참된 생명을 선택하라고, 잠시의 쾌락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하느님보다 명예와 권력 그리고 돈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처음엔 우리에게 대한 경고로 들리던 복음말씀이 자꾸 읽다 보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로 다가옵니다. 바늘과 실이 하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알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끔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역 소식>

- ❖ 오늘 미사후 1구역 모임이 이성희, 김리미 가족덕에서 있습니다. 1구역에 속한 교우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오늘 미사후 공동체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공동체 저녁 식사를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특히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오늘은 매월 마지막주에 있는 2차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달부터 연말까지 모아지는 2차 헌금은 우리 공동체가 매년 St. Paul 본당에 내는 성당사용료 (\$2000 - \$3000)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입니다. 2차 헌금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공동체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이나 사목회장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일학교에서는 따로 첫 영성체 교리반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영성체 대상 자녀를 둔 교우분들은 입구에 비치된 Sign-Up 용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9-2010년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비자 교리는 김 아셀라 수녀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비자분들이나 가톨릭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리 수업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사제관에서 열리며, 다음 교리 수업은 2주 후인 10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 방학동안 중단되었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서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서모임은 정원심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지도해 주시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성당 사무실 스터디룸에서 모입니다. 관심있는 학부 학생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서 교우들을 위해 전기 칫솔 (Oral-B Triumph model) 두 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전기 칫솔 세트는 오늘 미사후 지하 친교실에서, 그리고 다음 주 추석 미사후 각각 한분씩 추첨을 통해 뽑으신 교우분에게 경품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기증해주신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 다음주일 (10월 3일) 미사는 추석야외미사로 Marshal Park (2101 Allen Blvd.)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사, 점심식사, 그리고 간단한 게임/오락등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모든 교우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고향의 가족 친지를 생각하면서, 또 풍성한 가을의 느낌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야외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일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차편이 필요하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목회장이나 부회장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 추석 야외 미사를 위해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준비하실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구역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구역: 전 (1.5 or 2 trays) / 2구역: 해물 무침 (1.5 or 2 trays) / 3구역: 잡채 (1.5 or 2 trays) / 4구역: 나물 (1.5 or 2 trays)
각 구역 공통: 양념 불고기 (안 구운 것) 10파운드 및 밥 2통 (20인분)